

역사상 군주의 책사(策士)로 너무나 유명한 이사와 한명회, 그들과 닮아 있으면서도 철학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인물이 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여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살았던 유학자, 바로 삼봉(三峰)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향리(鄕吏-대물림으로 내려오던 지방의 벼슬아치)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살았다. 그 후, 개경에 올라와 이색의 문하에서 정몽주, 이숭인 등과 함께 유학을 배웠다. 스승 이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 대사성, 우왕의 사부(師傅)를 지낸 원로 대신으로서 장왕을 옹립하여 이성계 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고결한 선비의 표본인 학자를 스승으로 모셨던 정도전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 성균관 박사와 태상 박사(나라의 제사를 관장하던 정6품 관직)를 거쳐 예의정랑(정5품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이인임 등의 친원(親元) 정책에 반대하여, 전라도 나주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된다. 이인임은 공민왕 사후 우왕을 추대하여 정권을 잡은 다음, 충북들을 요직에 앉히는가 하면 매관매직 등 전횡을 일삼아 백성들의 분노를 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TV'



출세의 달인들-정도전(1)

황포에 화를 참지 못한 최영 장군과 이성계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어떻든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이인임에 의해 정도전은 여러 해 동안 유랑 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바, 이 무렵 그는 초라한 조가집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글 친구에게 음식을 얻어 먹기도 하고 손수 밭갈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별꽃 떨어 날이 있다고 했던가? 드디어 1383년,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간 정도전은 그와 세상사를 논하고 인연을 맺었으며,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 대사성의 자리에 올랐다. 이 벼슬로 말할 것 같으면, 정3품 당상관으로서 유학과 문묘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던 바 성균관의 실질적인 최고 위직이기도 했다. 이듬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자, 정도전은 고려 32대 왕이자 신돈의 사생아로 알려진 우왕을 폐하고, 그의 아들인 창왕(고려 33대 왕)을 세워 밀직부사가 되었다. 밀직부사는 왕명을 전달하고 궁궐을 경호하며 군사기밀 파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중2품 벼슬이었다.

이후 정도전은 스승인 이색과 친구인 정몽주와 의견을 달리 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정도전은 이성계, 조준 등과 협의하여 우왕과 창왕 부자를 폐위시키고, 공양왕(고려의 마지막 왕)을 즉위시켰다. 이 공로로 그는 높은 벼슬과

함께 공신전 100결(30만평 이상의 밭)과 노비 10명을 하사받았다. 명나라에 가서는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모함을 해명하고 돌아와, 당시 고려의 최고 정부 결정기구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겸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391년 삼군도총제부가 설치되자 정도전은 우군총제사(右軍總制使)가 되어 이성계, 조준(좌군총제사)과 함께 병권(兵權)을 장악했다. 이어 개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균관 학생들과 함께 불교 배척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이색과 우현보 등에 대한 처형을 상소했다. 입신 출세를 위해 스승(이색)마저 배반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우현보는 정몽주가 살해되었을 때, 그 시체를 거둬 장례를 치러 주었던 인물이다.

이 일로 유배를 갔다가 석방되기도 했던 우현보는 이후 정도전 일파가 제거된 뒤 복관되었으며, ‘제 2차 왕자의 난’ 때려는 반란의 소식을 이방원에게 미리 알려진 공으로 추충보조공신(推忠輔祚功臣)에 봉해진다. 그 역시 서류에 영합한 측면에서는 정도전 못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대형 산불 막는 첫걸음, 기동성 높은 산불진화차량 확충 시급”

최근 계속되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가파른 화순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가장 우선하는 행동 요령은 발생 초기 신속 대응입니다. 그러나 화순군에는 산불진화차량이 일부 지역에만 배치되어 원거리 읍·면의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지대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일반 소방차는 크기가 대형차 수준으로 농로·임도·급경사지 등 좁고 험한 길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불길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초기 진화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반면, 산불진화차량은 차체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 좁은 산길이나 임도까지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 1대씩 산불진화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 능력 대폭 향상

읍·면마다 진화차량이 상시 대기한다면, 산불 발생 직후 5~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해져 초기 진화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형에 적합한 기동성 확보

산지가 많은 화순군의 특성상, 일반 소방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진화차량이 더 적합합니다. 좁고 험한 지형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현장 대응에 유리합니다.

지역 기반 대응체계 강화

읍·면에 배치된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예방진화대,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단, 의용소방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훈련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적·환경적 피해 예방

산불 피해 복구에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반면,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 1대 확보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화순군은 전체 면적 중 약 73%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군민이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읍·면별 산불진화차량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에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차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호범 화순부군수

독자투고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

소상공인 올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 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

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

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음력 4월 15일)

 48년생 기쁨게 했던 처신 발목이 잡혀진다. 60년생 늦게 배운 공부 열심히 하게 한다. 72년생 고생한 보람 곳. 71이 든든해진다. 84년생 굶고 예쁜 말로 천 냥 빚을 갚아 내자. 96년생 부딪히고 깨지고 세상을 배워가자.	 49년생 도망가고 싶어도 정면 돌파해보자. 61년생 누구라는 이름자신감이 더해진다. 73년생 날선 비뚤고 감사하게 받아내자. 85년생 착한 거짓으로 순간을 넘어가자. 97년생 대신하는 자리 주인공이 되어간다.	 50년생 불리하다 싶어도 포기하는 굴욕이다. 62년생 미움도 정이다. 품으로 안아주자. 74년생 혼자만의 생각 잘못임을 알아내자. 86년생 불신과 오해 색안경을 벗어내자. 98년생 세롭게 훈련을 눈물 보석이 되어간다.
 51년생 빈수레 요란함 귀들므로 홀려내자. 63년생 빛 고운 수채화 행복이 함께 한다. 75년생 중단 없는 전진 앞만 보고 달려가자. 87년생 밭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보자. 99년생 자꾸하는 변명 관심에서 지워진다.	 52년생 겸손한 생활습관 양비를 먹이내자. 64년생 관허하는 공치사 모 양만 빠져간다. 76년생 완벽하다 싶어도 참고 인내하자. 88년생 고맙다 인사에 진심을 더해 주자. 00년생 비어있던 가슴에 열람이 채워진다.	 53년생 오라는 곳이라도 이유를 가져보자. 65년생 심각한 내부 디통 빠르게 수습하자. 77년생 적당한 양보로 서로가 만족하자. 89년생 답답한 심정을 밖으로 꺼내보자. 01년생 중요한 건 찾아상 꾸미고 치장하자.
 54년생 이기려 하지 마라, 즐기면서 해보자. 66년생 가슴 뜨거워지는 열정을 피워보자. 78년생 부럽다 멋있다. 극찬을 들어보자. 90년생 걱정과 반대는 응원으로 변해진다. 02년생 좋다고 하는 고백도 시기를 알아보자.	 55년생 모든 게 훌륭한 표정이 그려진다. 67년생 인연의 방심 후폭풍을 크게 한다. 79년생 두 말 하는 약속, 신뢰를 잃어야 한다. 91년생 함께 하자 제안 받아들여도 부족하다. 03년생 누가 우선인지 위아래를 따져보자.	 56년생 이런 저런 집념 중심을 잡아내자. 68년생 가격 흥정을 거칠고 사내워야 한다. 80년생 어려웠던 살림에 여유가 다시 온다. 92년생 긍정적인 대담 하려임을 알아내자. 04년생 초라하거나 구차하지 않아야 한다.
 57년생 고집도 정도껏 원망을 들어야 한다. 69년생 날아오를 기세 포부를 크게 하자. 81년생 선무당 간섭 들은 척만 척 해보자. 93년생 이런 저런 시정을 미리 헤아려주자. 05년생 기초부터 다시 걸음마를 걸어야.	 58년생 장성이 담겨있는 선물이 오고간다. 70년생 사소한 일상에 귀환을 가져보자. 82년생 아팠거나 근심 바람에 쓸려진다. 94년생 확연한 차이로 경쟁에서 이겨내자. 06년생 슬픔도 남지 않은 이별 인사 해보자.	 47년생 아작은 현역 간재함을 과시하자. 59년생 반가운 얼굴들과 회포를 풀어보자. 71년생 극적인 반전 축하하는 덤으로 온다. 83년생 멀리 있던 목표가 눈으로 보이자. 95년생 결과는 대성공 뽐내듯이 해준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